

#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추천' ... 세계 간호사 하나되다



### 대한간호협회 '나이팅게일의 밤' 개최 세계 간호지도자들 한마음 한뜻 지지

세계 간호지도자들이 모여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고귀한 간호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국제간호협의회(ICN) 학술대회 기간 중에 '나이팅게일의 밤(Night of the Nightingales)' 행사를 6월 28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컨벤션센터 멜라티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가 소록도에서 40여년간 한센인들을 위해 보여준 헌신적인 삶 그리고 사랑과 인류애를 오마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 간호협회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40여년 동안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헌신한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두 간호사는 사랑과 인류애를 몸소 실천하며 진정한 간호가 무엇인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아네트 케네디 회장을 비롯한 ICN의 강력한 지지에 감사드리다"면서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에 세계의 간호사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소록도 한센인들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선물했으며, 외로운 섬 소록도에 사랑을 심었다"고 말했다.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며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은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넘어 전 세계 모든 간호사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경림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한간호협회의 탁월한 리더십에 감탄했다"면서 "각국 간호협회가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며, ICN에서 항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



전위원회 위원장인 김홍식 전 국무총리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원한다"면서 견제제의를 했다.

널심 나우 공동위원장이 나이젤 크리슈 경은 격려사를 통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가 실천한 인류에 대한 사랑에 깊이 공감한다"며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리더로서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은 ICN과 널심 나우가 지지하는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이스 피츠패트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간호대학 교수는 격려사에서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나이팅게일을 상징하는 간호사"라며 "간호사에게 의미 있는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가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집 주싱가포르 한국대사는 견제제의를 하며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헌신적인 삶에 존경을 표한다"면서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을 담은 영상물을 관람했으며, 다함께 후보추천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한국의 뜻을 알리는 공연으로 국악인 정경화 씨가 가요급 연주를 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한센인들 상처와 아픔 간호 40여년 소록도에서 자원봉사



푸른 눈의 소록도 전사 마리안느 스토거(Marianne Stöger 85세, 한국어명 고지선·사진 왼쪽)와 마가렛 피사렉(Margaritha Pissarek 84세, 백수선·사진 오른쪽)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간호학교를 졸업했다.

구호단체 다미안재단을 통해 마리안느는 1962년, 마가렛은 1966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간호사로 파견됐다.

공식적인 파견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록도에 남아 40여년간 한센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일했다.

20대에 소록도를 찾았던 두 간호사는 70대 노인이 되어 떠났다. 제대로 일할 수 없어 오히려 부담을 줄까봐 조용히 떠나는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2005년 11월 22일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마리안느는 대장암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며 완치됐다. 마가렛은 치매를 앓고 있는데, 소록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주 행복하고 좋았다"고 말한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간호사, 엄마, 소록도 할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지만 그 모든 부름은 사랑 그 자체였다. 국민훈장(모란장), 호암상 사회봉사상, 만해대상 실천부문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받았으며, 명예 전남도민으로 선정됐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고귀한 정신을 배우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요람이 될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이 올해 3월 27일 개관했다. 나눔연수원은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관과 마리안느·마가렛 기념관으로 구성됐다.



### 간협, 마리안느와 마가렛 홍보부스 운영 후보추천 지지 서명 세계로 확산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전 세계 간호사들이 동참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국제간호협의회(ICN) 학술대회가 열린 6월 27일~7월 1일 '마리안느와 마가렛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서명운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총 2904명이 참여하면서 서명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홍보부스를 찾은 간호사들은 "두 분의 고귀한 삶이 큰 울림으로 다가와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면서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은 국경을 초월해 세계 모든 간호사들이 참여하고 도와야 할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입을 모으며 서명했다. 자신의 이름과 국가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이는 퍼포먼스에도 적극 동참했다.

주요 내빈들이 홍보부스를 방문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다. WHO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서명하고 적극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ICN 아네트 케네디 회장도 이사진 및 하워드 캐튼 사무총장, 노르웨이간호협회장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서명했다.

기조강연자로 초청된 김홍식 전 국무총리(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장)가 직접 홍보부스에 나와 세계 간호사들에게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알렸다. 김홍식 추천위원장은 기조강연과 함께 마리안느와 마가렛 홍보영상을 상영했으며, 수천명의 간호사들이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간호대학생 대표들이 홍보부스에서 세계 간호사들을 맞이했다. 특히 간호협회 이사들과 간호대학생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홍보부스를 지켜 한국의 멋을 함께 알리며 큰 인기를 모았다.

홍보부스에서는 두 간호사의 생애를 소록도에서의 활동 사진들과 함께 보여주는 전시가 열렸다.



기조강연자로 초청된 김홍식 전 국무총리는 강연과 함께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을 담은 홍보영상을 상영했으며, 수천명의 간호사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전시는 '한센인들의 할매전사(Mama Angels)' 타이틀 아래 △두 간호사의 삶의 여정 △한센병 환자들의 섬 한국의 소록도에 오다 △버림받았던 환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다 △외로움과 고통을 넘어 희망과 사랑의 세상을 열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다 등으로 구성됐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고귀한 손(핸드프린팅) 위에 관객들이 자신의 손을 갖다대어 보며 교감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핸드프린팅 동판은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 있는 '마리안느·마가렛 기념관'에 전시돼 있으며, 동판 사진을 출력해 이번 퍼포먼스에서 사용했다.

홍보부스에서는 두 간호사의 삶을 담은 리플릿과 기념품을 배포했다. 후면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도 상영돼 홍보부스를 찾은 간호사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추천

### 간협 홍보부스 ... 세계 간호사 서명 줄이어

